

STX그룹, 에너지사업 강화 개편

미래 신 성장동력 확보 주력 ... 2008년 매출 20조원에 수출 160억달러

STX그룹이 매출 20조원, 경상이익 1조8000억원, 수출 160억달러 달성을 2008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STX그룹은 11월23일부터 2일간 그룹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년 하반기 임원 워크숍에서 2008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STX그룹은 2008년 전 계열사의 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기존 핵심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함께 미래 신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TX그룹은 조선·기계, 해운·물류, 에너지·건설의 기존 3대 비즈니스 부문을 조선·기계, 해운·무역, 플랜트·건설, 에너지의 4대 부문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 선점을 위한 개발형 사업(Biz Developing)모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STX그룹은 전세계 7개 권역별 글로벌 전략거점의 지속적인 확충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TX그룹은 2008년 조선·기계부문에서 7조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해운·무역부문에서 10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2010년에 매출 20조원을 올린다는 <비전 2010>을 2008년 조기 달성기로 했다.

STX그룹은 2007년 매출은 계획(10조원)보다 30% 초과한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덕수 회장은 워크숍에서 “새로운 목표 달성과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직원과 경영진을 매개할 수 있는 임원의 혁신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체를 보고 각 부문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복합적 시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이룩한 외형 성장에 도취되지 말고 사회적 책임, 공공적 책임,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6>